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시교차적 메타분석(1999-2014)*

이 선 경 팔로마 베나비데스 허 용 회 박 선 응[†]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최근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이 증가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Raskin & Terry, 1988)를 사용하여 나르시시즘을 측정하는 논문을 추출하여 시교차적 메타분석(cross-temporal meta-analysis)을 실시하였다. 총 28개 연구 집단에 포함되었던 13,45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고, 분석에 포함된 자료의 논문출판기간은 1999년부터 2014년이었다. 참여자수에 가중치를 둔 가중회귀분석 결과, 나르시시즘 평균점수는 논문출판연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7$). 즉,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붕괴하고 그에 따라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진 현대 한국 사회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추이를 보여준 연구로, 나르시시즘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원인 및 나르시시즘의 증가가 단기 및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나르시시즘, 자기애, 시교차적 메타분석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2014년 5월 31일,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과대평가, 자기중심주의, 특권의식 등으로 대표되는 성격적 특성으로,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거만하며 남들로부터의 존경을 요구한다. 나르시시즘은 일반인들이 지니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나르시시즘은 성격장애로 진단되기도 한다(Miller & Campbell, 2008). 한편, 타인과의 조화보다는 개인의 우월함을 중시하는 나르시시즘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후기 산업사회의 주된 특성이다(Lasch, 1979). 한국사회가 지난 수십 년 간 급격하게 산업화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한국사회 내의 전반적인 나르시시즘 성향을 진단해 보는 작업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르시시즘이 증가해 왔는지 알아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나르시시즘은 종종 자기에로 번역된다. 하지만 자기애(self-love)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자존감(self-esteem)을 포함하는 용어이고, 나르시시즘은 자기애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한 예로, Campbell, Rudich 과 Sedikides(2002)가 출판한 논문의 제목은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positivity of self-view: Two portraits of self-love*로, 저자들은 나르시시즘과 자존감을 자기애의 두 초상화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밝힌다.

미국 사회에서의 나르시시즘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심리학계는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연

구를 지속해왔다. 특히 Twenge와 Campbell (2009)은 미국 사회에 나르시시즘이라는 병이 유행하고 있으며, 나르시시즘의 중요한 특징인 특권의식을 들어 현 세대를 '특권의식의 시대'라 명명하기도 하였다. 1979년, 전쟁 후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든 당시 미국 사회를 '나르시시즘의 문화'로 일컬었던 Lasch의 진단은 옳은 듯 보이고, 오늘날 미국 국민들 스스로도 자국의 문화를 나르시시즘적이라 인식한다(Campbell, Miller, & Buffardi, 2010).

이러한 진단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은 많다. 1960년대부터 2008년 사이 미국에서 출판된 약 70여 만 권의 도서들의 본문을 분석한 결과, 일인칭 복수(we, us, our)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일인칭 단수(I, me, mine)의 비중은 증가했다(Twenge, Campbell, & Gentile, 2012). 이러한 결과는 나르시시즘의 특성 중 하나인 자기중심성이 증가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에서 유행했던 대중가요들의 가사를 분석한 결과, 남들과의 상호 교류를 가리키는 말이나 타인초점적(other-focused) 언어는 감소한 반면, 자기초점적(self-focused) 언어나 반사회적 언어는 증가해 왔다(DeWall, Pond, Campbell, & Twenge, 2011). 이러한 자기중심성의 증가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인들의 타인에 대한 공감은 감소했다(Konrath, O'Brien, & Hsing, 2011). 유일함의 추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점차적으로 흔한 이름 대신에 독특한 이름을 더 많이 선택해 왔다(Twenge, Abebe, & Campbell, 2010).

이러한 미국인들의 행동적 변화들이 실제로 나르시시즘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Twenge, Konrath, Foster,

Campbell과 Bushman(2008)은 1982년부터 2006년 사이 심리학 연구에 참여했던 대학생 16,475 명의 나르시시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각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점수와 연구 논문의 출판연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참여자 수로 가중값을 적용해 회귀분석한 결과 나르시시즘과 연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beta = .53, p < .001$). 다시 말해, 지난 20여 년 사이 미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본 연구는 Twenge 등(2008)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이 증가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 1970년대 미국사회의 나르시시즘은 오늘의 한국사회와 비슷해 보인다. 얼짱, 몸짱 같은 몸 숭배의 사회적 분위기도 나르시시즘의 발로이고, 카메라 폰과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내는 자기중심의 영상 이미지도 나르시시즘이다”(226쪽).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나르시시즘 문화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Buffardi & Campbell, 2008), 한국 사회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개인화된 기기들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는 점은 나르시시즘이 증가하기에 좋은 환경이 구성되

한국 사회에서의 나르시시즘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어떤
비교도 난 거부해... 아무나 잡고 물어봐.
누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 2NE1(2011), <내가 제일 잘나가>

위의 구절은 최근 유행한 대중가요의 가사로, 나르시시즘 성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가사를 가진 노래들이 유행한다는 것은 대중들이 이런 가사를 접했을 때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아가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 의미를 내재화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대중가요의 가사를 통해 미국 사회의 나르시시즘을 진단했던 연구 결과를 생각해 볼 때(DeWall et al., 2011), 이런 노래의 유행은 한국 사회에 나르시시즘이 팽배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작가 김형경(2012) 역시 오늘날의 한국 문화를 나르시시즘 문화라 진단하기도 하였다. “크리스토퍼 래시가 진단

표 1. 나르시시즘 관련 논문의 연도별 출판 현황

연도	학위 논문	학술지	합계
1999	5	2	7
2000	2	2	4
2001	1	3	4
2002	8	7	15
2003	7	11	18
2004	8	13	21
2005	5	22	27
2006	15	22	37
2007	15	24	39
2008	14	32	46
2009	19	41	60
2010	22	54	76
2011	22	62	84
2012	24	41	65
2013	26	45	71
합계	193	381	574

주. 논문 검색 사이트 RISS에서 검색 2014. 5. 15.
기준 (주제어: 자기에, 나르시시즘, narcissism)

어 있음을 말해준다. 한 대중매체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히 연락의 수단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셀프 카메라'의 수단으로,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데일리 한국, 2010). 또한 타인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한 목적의 다이어트와 성형 수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한국 사회 내 나르시시즘의 증가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해정, 2008).

앞서 언급한 나르시시즘적 현상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 저변을 넓혀 온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Foster, Campbell, & Twenge, 2003; Paris, 2014).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개인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사회 각 영역에서는 집단보다는 개인을, 협동보다는 경쟁을 강조하는 하는 풍토가 당연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심리적 경향이 사회 전반에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듯, 나르시시즘과 관련된 연구들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1 참고). 또 나르시시즘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반영하듯, 병리적인 관점에서 나르시시즘을 연구했던 기존 추세와 달리, 근래에는 나르시시즘을 하나의 성격적 특성으로서 다루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ain, Pincus, & Ansell, 2008).

비록 여러 사회적, 문화적 현상들이 한국 사회의 나르시시즘 팽창을 암시하고 있지만, 저자들이 아는 한 아직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르시시즘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성격적, 행동적 성향들을 염두에 둘 때,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나르시시즘 현황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히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출판되었던 나르시시즘 관련 연구들에서 보고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나르시시즘의 변화 추이를 메타분석하여, 한국에서 나르시시즘이 증가해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개요

한국사회에서 나르시시즘이 증가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교차적 메타분석(cross-temporal meta-analysis)을 사용하였다. 시교차적 메타분석이란 Twenge(1997)가 미국 국민의 남성적 성격, 여성적 성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측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분석방법이다. 기존의 메타분석이 각 연구로부터 추출한 효과들을 공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임에 반해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추출된 효과들의 변화 추이를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Twenge는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의 외향성, 불안감, 자존감, 통제감 등의 변화에 대해 20편 가까운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심리학자들 역시 비슷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Xin, Zhang, & Liu, 2010). 저자들이 아는 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도입한 연구이다.

나르시시즘의 증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즘의 측정 방법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88년에 Raskin과 Terry가 출판한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이용한 연구들만을 분석하였다. NPI는 40개의 강제 선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참여자들은 두 가지 문항 중 자신을 더 잘 설명하는 문항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나는 다른 여느 사람과 비슷하다”와 “나는 비범한 사람

이다”라는 문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나르시시즘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택한 경우 (이 예의 경우 “나는 비범한 사람이다”) 1점을 부여하고, 다른 문항을 선택한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NPI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4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NPI는 나르시시즘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라는 전제하에 나르시시즘을 연속변수로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수정이 1999년 번안하고 타당화 연구를 하였다.

나르시시즘을 측정하는 여러 척도 중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NPI를 선택하였다. 첫째, NPI는 나르시시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척도이다. Cain 등(2008)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을 연구한 사회 및 성격심리 분야의 논문 중 77%가 NPI를 이용하였다. 둘째, NPI는 현재 출판되어 있는 나르시시즘 척도 중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에서 진단하고자 하는 나르시시즘을 가장 잘 측정한다(Miller, Lynam, & Campbell, in press). Miller, Gaughan, Pryor, Kamen과 Campbell (2009)은 일반 대학생과 임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나르시시즘을 측정하고 NPI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뷰를 통해 평가된 나르시시즘 점수와 NPI를 통해 측정된 나르시시즘 점수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반 대학생의 경우 상관관계수(r)는 .59였고, 임상 환자의 경우에는 .54이었는데, 인터뷰와 자기보고라는 두 가지 다른 형식을 이용한 결과임을 생각하면 이러한 상관관계는 상당히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NPI는 미국(Twenge et al., 2008)이나 뉴질랜드(Wilson & Sibley, 2011), 중국(Cai, Kwan, & Sedikides, 2012) 등 다른 나라에서의 나르시시

즘 증가 추이를 조사한 연구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 증가에 대한 국제간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을 분석에 포함했다. 첫째, NPI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 대다수가 대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둘째, 대학생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인구통계학적인 요소가 일정한 편이어서 다른 변수들이 비교적 잘 통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회에서의 나르시시즘의 증가 추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Twenge et al., 2008).

방 법

논문 검색

2014년 3월부터 5월 8일까지 인터넷을 사용하여, 국회 도서관, RISS, DBpia 등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나르시시즘과 관련된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들을 검색, 나르시시즘 관련 연구들을 수집하였다.¹⁾ 반복 검색 및 다양한 사이트에서의 검색 등을 통해 검색 과정에서의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확보된 연구들의 참고문헌을 통해서도

1) 600여 건의 나르시시즘 관련 연구들을 검색한 결과, 문학이나 철학 등 심리학 이외의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 나머지 논문들은 NPI가 아닌 다른 척도들(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Covert Narcissism Scal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등)을 이용하여 나르시시즘을 측정하였다.

나르시시즘 관련 연구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유효 논문 선정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NPI를 사용해 나르시시즘을 측정된 논문만을 선정하였다. 한수정(1999)이 변안한 척도(이하 NPI-40) 외에,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변안한 NPI를 사용한 경우 원칙도(Raskin & Terry, 1988)가 같으므로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정남운(2001b)은 한수정(1999)이 변안한 NPI-40을 토대로 요인 분석을 통해 32문항으로 단축한 척도(이하 NPI-32)를 출판하였는데, 이 척도를 이용한 연구 역시 분석에 포함하였다.

상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들이 총 108편 검색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든 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원칙도에서 사용했던 강제 선택형이 아닌 리커트 방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점수를 일대일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전체 NPI 평균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평균 점수가 척도의 최고 점수인 40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문의 메일을 발송하여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다. 저자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일주일 후 2차 문의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그럼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무응답'으로 처리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문의가 필요하나 저자의 연락처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연구는 제외되었다. 문의 메일 발송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은 경우는 두 건(권석만, 김지영, 2002; 김태석, 이기학, 2012)이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총 28개의 참여자 집단이 선정되었고, 분석에 포함된

전체 연구 참여자들의 수는 13,450명이었다.

계산 방식 및 자료 분석 전략

원칙도의 계산 방식(나르시시즘 성향에 부합하는 문항에 1점을, 그렇지 않은 문항에 0점을 부여한 뒤, 모든 문항에서 보고된 점수를 합하여 점수를 산출)으로 보고된 NPI-40의 평균 점수는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NPI-32에서 보고된 평균 점수는 비례식을 사용하여 NPI-40에 해당하는 평균 점수로 환산한 뒤 분석에 포함하였다.²⁾ 성별이나 집단 별로 NPI 평균 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NPI 평균에 각 집단 연구 참여자들의 숫자를 곱하고 이들을 합산한 후, 전체 연구 참여자 수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필요한 NPI 점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 부분에 기재된 연구 참여자 수와 NPI 평균 점수 계산에 활용된 연구 참여자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NPI 평균 점수 계산에 활용된 연구 참여자의 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NPI를 통해 측정된 나르시시즘 평균이 시간에 따라 증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NPI 평균 점수와 논문의 출판연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시교차적 메타분석

2) 평균 환산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NPI-40의 평균 점수와 NPI-32의 평균 점수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NPI-40의 평균 점수($M = 17.04, SD = 1.35$)와 NPI-32의 평균 점수($M = 17.14, SD = 1.13$)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26) = -.21, p = .84$. 이는 NPI-40을 사용된 연구를 기준으로 하되, NPI-32 평균 점수를 비례식에 따라 환산하여 분석에 포함시킨 본 연구의 방법론적 타당성을 높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 메타분석에 포함된 참여자와 나르시시즘 현황

출처	연도	참여자수	평균연령	평균	표준편차
한수정 (1999)	1999	403	20.80	15.15	6.92
정남운 (2001a)	2001	496	20.56	14.63	6.76
이원희 (2001)	2001	520	21.80	18.58	6.79
정남운 (2001b)*	2001	1200	21.00	15.69	7.70
권석만, 김지영 (2002) 연구 1	2002	370	20.96	17.06	7.20
이윤조 (2002)	2002	511	-	16.33	-
이인숙 (2002)	2002	778	-	16.01	-
박세란 (2004)	2004	324	20.30	17.10	6.68
강연우 (2004)*	2004	280	22.90	15.60	7.31
강일선 (2005)	2005	337	20.30	16.52	7.32
장건희 (2007)*	2007	459	-	17.13	7.80
박희정 (2007)	2007	186	-	16.62	7.59
길주현 (2008)	2008	320	-	17.93	7.25
백경립 (2009)	2009	474	20.80	17.15	7.02
최혜정 (2009)*	2009	368	23.10	16.48	7.60
이은진, 김영윤, 김범준 (2010)	2010	864	21.00	17.23	6.32
김효주 (2010)*	2010	317	21.92	16.88	8.05
김영윤, 이은진, 김범준 (2011)	2011	1003	20.90	16.58	7.40
심상홍, 이장한 (2012)	2012	621	21.00	16.26	6.97
김태석, 이기학 (2012)*	2012	188	22.35	17.54	7.91
윤정선 (2012) 연구 2	2012	497	-	17.60	7.20
김경아 (2012)	2012	100	-	21.00	7.71
심상홍 (2012) 연구 1	2012	584	-	16.61	7.08
심상홍 (2012) 연구 2	2012	712	-	17.31	6.98
정은지 (2013)	2013	400	21.76	18.00	7.20
이화연 (2013)*	2013	335	-	18.28	7.73
박갑제, 임성문 (2013)*	2013	368	22.48	17.70	7.40
고은정 (2014) 연구 1*	2014	420	21.67	19.00	8.05

주. ‘*’ 부호가 표시된 연구들은 NPI-32를 사용한 연구들로, 비례식에 의거하여 NPI-40에 해당하는 평균 점수로 환산하여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 부호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계산 불가능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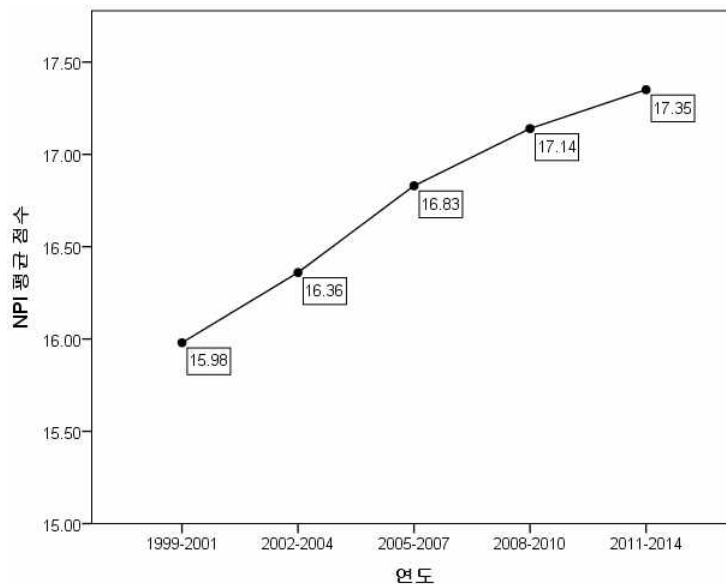
과 마찬가지로, 분석과정에서 참여자 수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두었는데, 이렇게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모집단(population)의 나르시시즘 변화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 (Twenge et al., 2008).

NPI 점수의 변화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가중회귀분석(weighted regression)과 각 연구 집단들의 표준편차를 이용했다. 우선 가중회귀분석을 위해서 SPSS를 이용하였고 NPI 평균을 종속변수로, 출판연도를 독립변수로, 참여자 수를 가중값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Y = bX + c$ 라는 형태의 회귀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때 b 는 비표준화 계수(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를, c 는 상수(constant)를 나타낸다. 이 방정식을 이용해 모집단에서 특정 연도(X)의 나르시시즘 평균(Y)이 얼마일지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각 연구 집단별로 보고된 NPI 평균

점수들의 표준편차를 참여자 수에 가중값을 주어 계산했다. 이렇게 계산된 가중평균 표준편차는 나르시시즘의 변화 크기를 가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결 과

가중회귀분석 결과, NPI 평균과 출판연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beta = .57, p = .002, k = 28$.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단순 상관관계 역시 비슷한 값을 산출했다, $r = .57, p = .002$. 이러한 결과는 1999년과 2014년 사이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것을 가리킨다(그림 1). 분석에 포함된 전체 참여자의 가중평균값은 16.84였다. 가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방정식(NPI 평균 = $0.123 \times$ 연도 - 230.132)을 이용해



주. 가중 평균(weighted mean)을 사용.

그림 1. 연도에 따른 한국 대학생들의 NPI 점수 변화 추이

1999년과 2014년의 NPI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 1999년에는 15.75, 2014년에는 17.59라는 값이 도출되었다. 즉, 1999년의 대학생들이 나르시시즘을 나타내는 40개 문항 중 15.75개의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에, 2014년의 대학생들은 17.59개의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것이다.

두 평균 사이의 차이값(1.84)을 가중평균 표준편차(7.24)로 나눈 값은 0.25이었다. 이 값은 지난 15년 동안 한국 대학생들의 NPI 평균 점수가 0.25 표준편차만큼 증가했음을 나타내는데, Cohen(1977)이 제시한 효과크기(effect size)에 해당하는 값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Twenge 등(2008)이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982년부터 2006년 사이 24년 동안의 나르시시즘 증가 추이를 살펴본 연구의 경우, 분석에 포함된 전체 참여자의 가중평균값은 16.59였고 효과크기가 0.33임을 감안할 때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수준 및 증가 추이는 미국 상황에 필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르시시즘 점수가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백분위수를 이용해 표현할 수도 있다. 1999년의 평균적인 학생이 정규분포의 중앙인 백분위수 50점이라고 할 때, 2014년의 평균적인 학생은 백분위수 60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 내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이 증가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14년 초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르시시즘을 연구한 논문들로부터 참여자들의 나르시시즘 평균 점수, 참

여자 수, 논문출판연도를 추출하였다. 참여자 수에 가중치를 주어 출판연도와 나르시시즘 평균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지난 15년 간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가리킨다. 기존의 나르시시즘 연구가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데 집중해 온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나르시시즘의 변화 추이를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나르시시즘의 증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나르시시즘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정적인 성격적, 행동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증가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물론 나르시시즘은 높은 자존감(Rose, 2002), 긍정적인 정서(Sedikides, Rudich, Gregg, Kumashiro, & Rusbult, 2004), 이성 관계에서의 성적 매력(Dufner, Rauthmann, Czarna, & Denissen, 2013), 대인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첫 인상(Back, Schmukle & Egloff, 2010; Oltmanns, Friedman, Fiedler & Turkheimer, 2004; Paulhus, 1998)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높은 나르시시즘이 부정적인 특징들과 관련된다는 연구는 무수히 많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강한 분노와 적대감을 보이고(서수균, 권석만, 2002; Stucke & Sporer, 2002), 사회적인 거부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하며(임지영, 2011; Twenge & Campbell, 2003), 따뜻하고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Campbell, Foster & Finkel, 2002; Campbell & Foster, 2002), 자신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들을 폄하한다(Bushman & Baumeister, 1998; Kernis & Sun,

1994; Park & Colvin, in press). 인간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이들이 보여준 좋은 인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정적으로 변하고(Park, & Colvin, 2014; Paulhus, 1998),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남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Park, Ferrero, Colvin, & Carney, 2013). 또 높은 나르시시즘은 불안정한 리더십(Chatterjee & Hambrick, 2007), 충동적인 의사결정(Campbell, Goodie & Foster, 2004), 사리사욕을 위한 공공자원의 훼손(Campbell, Bush, Brunell, & Shelton, 2005), 정신병질 요소(이은진, 김영윤, 김범준, 2010), 우울감(양선미, 박경, 2011) 등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나르시시즘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크게는 사회의 차원에서, 작게는 가족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 나르시시즘 성향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근대 사회(modern society)'의 도래와 깊은 관련이 있다(Paris, 2014). 근대 사회는 그 이전 사회와 달리 외부 기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인 내적인 상태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의 가족, 공동체의 구성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으며, 집단주의적 가치가 점차적으로 덜 중요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가치는 두드러지고 있다(Markus & Kitayama, 1994). 전통 사회처럼 가족이나 공동체 등의 사회적 연결망이 비교적 견고했던 시대에는 문제적인 성격 특질을 가진 이들도 상호 협력, 연대, 배려, 공동체의식 등의 집단주의적 가치 속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집단주의적 가치가 부족하여 문제적인 성격 특질을 가진 이들은 사회 속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고, 집단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

다(Paris, 2014). 결국 '나르시시즘 문화'란 이러한 근대성(modernity)으로부터 비롯된 개인주의적 풍토의 일면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나르시시즘적 문화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즘 성향의 지속적 확대 및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나르시시즘의 발달을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찾고자 하는 접근법도 있다.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Millon, Grossman, Millon, Meagher와 Ramnath(2004)는 실제적인 성취와 상관없이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칭찬을 퍼붓는 양육방식이 아이로 하여금 지나치게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심어준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감싸는 것이 아이로 하여금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 그리고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대를 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Kohut(1977)과 Kernberg(1975)는 나르시시즘이 연약한 자기개념에 대한 보상기제로서 발달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냉소적이고 지나치게 엄격한 훈육이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가치보다는 오로지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외모와 같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칭찬을 해준다면, 아이들은 칭찬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외모에 집착하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애정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특정한 자질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가능성이 있으며, 스스로의 자질에 매료된 나머지 결국 나르시시즘의 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권석만, 한수정, 2000; 김윤주, 1991). 이렇게 이론적인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최근 들어 나르시시즘과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Horton, 2011). 나르시시즘의 발달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나르시시즘의 증가와 동반되는 사회, 문화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나르시시즘 연구가 활발한 미국의 경우 유행가 가사(DeWall et al., 2011)나 출판된 도서(Twenge et al., 2012)의 내용, 자녀 이름(Twenge et al., 2010)의 변화를 나르시시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대학생들(약 20세)의 출생시점의 출산율, 즉 1979년(2.90명)부터 1994년(1.66명) 사이의 출산율과 나르시시즘 점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 = -.63$, $p = .02$. 이는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혼자서 자란 사람들의 나르시시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중국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Cai et al., 2012). 이처럼 심리적 변화와 연관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의미 있는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라는 한정적인 표본을 다루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보다 다양한 연령과 계층, 지역 등을 고려한 표본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형식의 NPI를 사용한 연구만을 분석하였으나, 추후 면담 등 나르시시즘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나르시시즘은 단일 차원이 아닌 여러 특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특성이며, 현상적 관

찰에 따라 외현적 나르시시즘과 내현적 나르시시즘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 활용된 NPI는 외현적 나르시시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이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심리학적 변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한국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심리학적 변수와 시간이라는 변수를 단순 비교하였으나, 다른 사회적 지표를 포함하여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다(Xin et al., 2010).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이용한 많은 의미 있는 연구가 뒤따라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변화 추이에 대한 최초의 경험적 분석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는 부모의 양육 방식 등 나르시시즘 증가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에 대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 청년들의 나르시시즘 증가가 이후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분석 작업 또한 요청되는데, 그러한 작업이 수행되는 데 있어 본 연구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문헌임.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 특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일선 (2005). 자기에와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은정 (2014). 자기자비와 자존감이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시 정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권석만, 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길주현 (2008). 자기에의 세부특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아 (2012). 심리적 위협 상황에서 자존감안정성양상과 조절초점의 부합에 따른 개인의 과제 수행.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운, 이은진, 김범준 (2011). 대학생의 자기에, 우울과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97-113.
- 김윤주 (1991).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태석, 이기학 (2012).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3(4), 123-141.
- 김해정 (2008). 자기에 성향에 따른 외모관여도 및 의복소비가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형경 (2012). 사람풍경. 경기: 예담.
- *김효주 (2010). 자기에 성향자들의 명시적, 암묵적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갑제, 임성문 (2013). 자기에와 성폭력의 관계: 경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1), 45-44.
- *박세란 (2004).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희정 (2007).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경림 (2009). 자기에와 자기효능감이 분노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심상홍 (2012).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자기애자의 투사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상홍, 이장한 (2012).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의 요인 구조: 외현적 자기에 및 내현적 자기에와의 관련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87-100.
- 양선미, 박 경 (2011). 청소년의 자기에 성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79-100.
- *윤정선 (2012). 자기에와 위험감수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원희 (2001). 자기에와 완벽주의, 적대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윤조 (2002).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생활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데일리 한국 (2010, 7, 28). 나르시시즘은 어떻게 진화했다.
- <http://daily.hankooki.com/lpage/coverstory/201007/wk20100728105454105450.htm>에서 2014. 7. 8.

- 자료 얻음.
- *이은진, 김영운, 김범준 (2010).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47-468.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화연 (2013).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향이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지영 (2011). 청소년의 자기에 및 자기개념 명료성과 분노행동양상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2(3), 305-325.
- *장건희 (2007). 자기애와 자기불일치 및 사회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남운 (2001a). 과민성 자기애 척도 (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남운 (2001b).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정은지 (2013).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대학생활 적응: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혜정 (2009).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집단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자아방어기제 특징.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ck, M. D., Schmukle, S. C., & Egloff, B. (2010). Why are narcissists so charming at first sight? Decoding the narcissism - popularity link at zero acquain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1), 132-145.
- Buffardi, L. E., & Campbell, W. K. (2008).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0), 1303-1314.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229.
- Cai, H., Kwan, V. S., & Sedikides, C. (2012). A sociocultural approach to narcissism: The case of modern China.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6(5), 529-535.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4), 638-656.
- Campbell, W. K., Bush, C. P., Brunell, A. B., & Shelton, J. (2005). Understanding the social costs of narcissism: The case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0), 1358-1368.
- Campbell, W. K., Foster, C. A., & Finkel, E. J. (2002). Does self-love lead to love for others? A story of narcissistic game play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340-354.
- Campbell, W. K., & Foster, C. A. (2002).

- Narcissism and commitment in romantic relationships: An investment mode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4), 484-495.
- Campbell, W. K., Goodie, A. S., & Foster, J. D. (2004). Narcissism, confidence, and risk attitude.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7(4), 297-311.
- Campbell, W. K., Miller, J. D., & Buffardi, L. E. (2010). The United States and the "Culture of Narcissism" An examination of perceptions of national character.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3), 222-229.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positivity of self-views: Two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3), 358-368.
- Chatterjee, A., & Hambrick, D. C. (2007). It's all about me: Narcissistic chief executive officers and their effects on company strategy and performa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2(3), 351-386.
-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rev. ed.). New York: Academic Press.
- DeWall, C. N., Pond Jr, R. S., Campbell, W. K., & Twenge, J. M. (2011). Tuning in to psychological change: Linguistic markers of psychological traits and emotions over time in popular US song lyric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5(3), 200-207.
- Dufner, M., Rauthmann, J. F., Czarna, A. Z., & Denissen, J. J. (2013). Are narcissists sexy? Zeroing in on the effect of narcissism on short-term mate appe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7), 870-882.
- Foster, J. D., Keith Campbell, W., & Twenge, J. M.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narcissism: Inflated self-views across the lifespan and around the worl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6), 469-486.
- Horton, R. S. (2011). Parenting as a cause of narcissism: Empirical support for psychodynamic and social learning theories. In Campbell, W. K. & Miller, J. (Ed.), *The handbook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oretical approaches, empirical findings, and treatment*. Wiley Publishing.
- Kernis, M. H., & Sun, C. R. (1994). Narcissism and reactions to interpersonal feedbac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1), 4-13.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nrath, S. H., O'Brien, E. H., & Hsing, C. (2011). Changes in dispositional empathy in American college students over time: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5(2) 180 -198.
- Lasch, C.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returns*. New York: Norton.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68-579.
- Miller, J. D., & Campbell, W. K. (2008). Comparing clinical and social personality

- conceptualiz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76(3), 449-476.
- Miller, J. D., Gaughan, E. T., Pryor, L. R., Kamen, C., & Campbell, W. K. (2009). Is research using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elevant for understanding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3), 482-488.
- Miller, J. D., Lynam, D. R., & Campbell, W. K. (in press). Measures of narcissism and their relations to DSM-5 pathological traits: A critical reappraisal. *Assessment*.
- Millon, T., Grossman, S., Millon, C., Meagher, S., & Ramnath, R. (2004). *Personality disorders in modern life* (2nd ed.). Hoboken, NJ: Wiley & Sons.
- Oltmanns, T. F., Friedman, J. N., Fiedler, E. R., & Turkheimer, E. (2004). Perceptions of people with personality disorders based on thin slices of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3), 216-229.
- Paris, J. (2014). Modernity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5(2), 220-226.
- Park, S. W., & Colvin, C. R. (2014). Narcissism and discrepancy between self and friends' percept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82(4), 278-286.
- Park, S. W., & Colvin, C. R. (in press). Narcissism and other-derogation in the absence of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 Park, S. W., Ferrero, J., Colvin, C. R., & Carney, D. R. (2013). Narcissism and negotiation: Economic gain and interpersonal los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5(6), 569-574.
- Paulhus, D. L. (1998). Interpersonal and intrapsychic adaptiveness of trait self-enhancement: A mixed bl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197-1208.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3), 379-391.
- Sedikides, C., Rudich, E. A., Gregg, A. P., Kumashiro, M., & Rusbult, C. (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3), 400-416.
- Stucke,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 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 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4), 509-532.
- Twenge, J. M. (1997).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A meta-analysis. *Sex roles*, 36(5-6), 305-325.
- Twenge, J. M., Abebe, E. M., & Campbell, W. K. (2010). Fitting in or standing Out: Trends in American parents' choices for children's names, 1880 - 2007.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 19-25.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2), 261-272.
- Twenge, J. M., Campbell, W. K. (2009). *The narcissism epidemic: Living in the age of entitlement*. New York: Free Press.
- Twenge, J. M., Campbell, W. K., & Gentile, B. (2012). Changes in pronoun use in American books and the rise of individualism, 1960-2008.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3), 406-415.
- Twenge, J. M., Konrath, S., Foster, J. D., Campbell, W. K., & Bushman, B. J. (2008). Egos inflating over time: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76(4), 875-902.
- Wilson, M. S., & Sibley, C. G. (2011). 'Narcissism creep?': Evidence for age-related differences in narcissism in the New Zealand general population. *New Zealand Journal of Psychology*, 40(3), 89-95.
- Xin, Z., Zhang, L., & Liu, D. (2010). Birth cohort changes of Chinese adolescents' anxiety: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1992-2006.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2), 208-212.
- 1차원고접수 : 2014. 07. 17.
수정원고접수 : 2014. 09. 14.
최종게재결정 : 2014. 09. 17.

Narcissism Increase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1999-2014)

Sun Kyung Lee Paloma Benavides Yong Hoe Heo Sun W. Park
Korea University

We investigated whether narcissism has increased among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We used the same cross-temporal meta-analysis as Twenge, Konrath, Foster, Campbell, and Bushman (2008) who reported narcissism increase in the U.S. We selected articles in which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Terry, 1988). There were 28 samples (total $n = 13,450$), and publication years ranged from 1999 to 2014. Mean narcissism scor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ublication years when weighted by sample size ($\beta = .57, p = .002$), indicating that narcissism has increased for the past 15 years. Since 1999, NPI scores have increased 0.25 standard deviation. Along with a recent report describing narcissism in China (Cai et al., 2012), this finding suggests that narcissism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East Asia.

Key words : narcissism, cultural narcissism,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cross-temporal meta-analysis